

제 237호 · 2014년 1월 2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APM Terminals 컨소시엄, Abidjan항 2단계 컨터미널 프로젝트 계약
2. 2014년 정저우-유럽 간 화물운송 정기열차 운행편수 100편으로 증가 예정
3. Cargil, 러시아 곡물터미널 운영개시로 흑해지역 거점확보
4. Maersk,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베트남 물류시장 전망 낙관

물류시장동향

1. 러시아, 무르만스크 항만 개발에 400억 달러 투입계획
2. 러시아교통부, 서시베리아지역에 41억 달러 규모의 철도연장 사업 고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APM Terminals 컨소시엄, Abidjan항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 계약**

- APM Terminals, Bolloré Africa Logistics사와 프랑스 건설회사 Bouygues사는 아이보리코스트(Ivory Coast,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Abidjan항에 새로운 터미널(TC2)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계약을 2013년 12월 19일 공식적으로 체결
 - 동 계약은 지난 7월31일에 서명했고, 정식 계약은 6개월 이후인 2013년 12월 19일에 체결하기로 약속
 - Abidjan항 첫 번째 컨테이너 터미널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바쁜 항만 중 하나로, 2012년에 약 60만TEU를 처리
 - Abidjan항 첫 번째 컨테이너 터미널은 Bolloré (60%)와 APM Terminals (40%)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SETV(Société d'exploitation du terminal de Vridi)가 운영 중
- 서아프리카의 주요 해상운송허브가 될 Abidjan항 두 번째 컨테이너터미널(TC2)은 2018년 1월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8,500TEU급 선박도 수용 가능한 시설로 건설될 전망
 - 현재 터미널은 3,500TEU급 선박까지만 수용 가능한데, 부두길이 1,100m·안벽수심 18m를 가진 새로운 컨테이너터미널은 선장이 350m인 선박도 수용 가능
- 아이보리코스트 정부는 준설과 운하확장, 토지매립, 안벽 설치 등을 포함한 기반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고 금융을 지원할 예정인데, 총 소요 예상 비용은 5억에서 8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
- 컨소시엄을 주도할 APM Terminals와 파트너들은 연간 처리능력 210만 TEU·야드규모 37.5헥타르의 TC2 터미널 설비를 설계하고 장비를 갖추 예정
 - APM Terminals는 TC2 터미널이 완공되면 6개의 슈퍼포스트파나막스 크레인, 26개의 RTGC(Rubber-Tyred Gantry Crane)와 9개의 STS(Ship-to-Shore) 크레인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언급
 - 컨소시엄은 21년 임대조건으로 총 6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처음 5년간(2013-2017년)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
- APM Terminals의 아프리카-중동지역 책임자인 Peder Sondergaard는 이 곳 서아프리카 지역과 새로운 이머징 마켓에 초대형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에 대한 수요가 있어 투자를 결정했다고 언급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3.12.20.

이언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e@kmi.re.kr)

□ 2014년 정저우-유럽 간 화물운송 정기열차 운행편수 100편으로 증가 예정

- 2014년 정저우(鄭州)-유럽 간 국제철도화물 운송 정기열차 운행편수가 연간 100편으로 증가될 전망
 - 현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철도화물 운송루트에는 서부, 중부 및 동부루트가 있으며, 정저우-유럽 간 국제철도화물 운송은 서부루트를 이용¹⁾
 - 2013년 7월 정식 개통되어 초반에는 매월 1회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매주 1회 정상 운행을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매주 2회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이중에는 독일에서 정저우에 이르는 운행편수 16편이 포함되며, 매주 토요일 발차
- 현재 이 루트의 최종 목적지는 독일 함부르크이나 2014년에는 11개 목적지를 신규 추가 예정
 - 이들로는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 뉘른베르크(Nuremberg),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뮌헨(Munich)과 폴란드 로도스(Rhodes), 바르샤바(Warsaw),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임
- 최근 열차 편명은 기존의 '80601편'에서 '80001편'으로 조정되었으며, 새로 편성된 열차는 정저우 철도컨테이너중심역에서 발차한 뒤 중국 국내 운행구간에 대해 무정차 그린라이트 운송 가능
 - 이에 따라 정저우에서 알라산커우까지의 운행시간이 기존 89시간에서 63시간으로 단축될 전망
 - 현재 정저우-유럽 루트(총 연장 10,214km)의 열차 운행시간은 16일~18일로, 기존의 해상운송에 비해 15일 정도 운송시간이 단축되며, 항공운송에 비해 80% 정도의 물류비용 절감 가능
- 정저우-유럽 루트는 개통된 후 5개월 동안 편의성, 신속성을 무기로 배후지를 반경 1,500km 범위까지 넓혔으며,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화물도 이 루트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된 바 있음
 - 현재까지 10편의 정기열차가 운행되었으며, 컨테이너 누적 발송량은 424TEU, 화물 종류는 노트북, Solar PV Glass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포함하여 101종, 화물 총액은 3,000만 달러에 이름
 - 화물원천지는 주장삼각주, 양쯔강삼각주, 환발해지역의 12개 성과 직할시를 포함하며, 환적 물량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

자료 : www.jctrans.com, 2013.12.17.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서부루트** : 중국 중서부에서 신장(新疆)자치구 알라산커우(阿拉山口) 통상구를 지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폴란드를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는 국제컨테이너 운송루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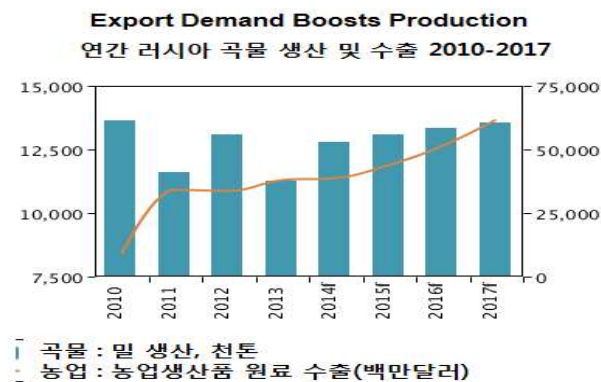
중부루트 : 중국 화북지역에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얼렌하오터(二連浩特) 통상구를 지나 몽골을 경유 및 러시아의 TSR를 이용하여 벨로루시, 폴란드를 경유한 뒤 유럽에 이르는 국제컨테이너 운송루트임.

동부루트 :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에서 네이멍구자치구 만저우리(滿州里) 통상구를 거쳐 러시아의 TSR를 통해 벨로루시, 폴란드를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는 국제컨테이너운송루트임.

□ Cargil, 러시아 곡물터미널 운영개시로 흑해지역 거점확보

- Cargil이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항만의 곡물터미널 지분 매수를 통해 국제 곡물시장에서 러시아 곡물 수출입 물류 채널을 확보
 - Cargil은 지난해 12월 19일 Kombinat Stroykomplekt(KSK)의 곡물터미널 운영지분의 25%를 매수
 - KSK는 노보로시스크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Delo Group이 인수·합병하였으며 Cargil은 Delo group과 파트너십 체결에 환영을 표함
 - 이번투자는 러시아에 대한 Cargil의 투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를 기반으로 곡물의 수출입 물류 채널을 확보
 - Cargil은 수 년 전부터 러시아의 곡물생산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투자금액은 약 9억 달러 이상
- Cargil은 흑해지역에 물류 거점을 확보하면서 흑해에서의 수출 통관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수출입량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이중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 항만의 곡물 터미널은 러시아의 곡물 수출 시장에 적합한 거점이며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2천만 톤의 곡물을 수출 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곡물 생산 및 수출액 >



자료 : Businessmonitor

< Cargil 흑해지역 거점위치 >



- Cargil이 흑해지역의 곡물 수출시장을 선점하면서 이 지역의 거점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시장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2013.12.27.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kmi.re.kr)

□ Maersk,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²⁾으로 베트남 물류시장 전망 낙관

- Maersk는 TPP가 베트남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Maersk Line 베트남·캄보디아 CEO인 Nguyen Thi Ngoc Bich에 따르면 베트남은 낮은 인건비,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깊은 수심을 가진 항만 인프라, 농산물 수출의 선도적 지위, 높은 GDP 성장률, 정치적 안정, 정부의 지원 등에서 비교우위 보유
 - Maersk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위기로 미국과 EU는 교역 증가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베트남은 같은 시기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
 - 특히 컨테이너를 통한 아시아 역내 교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베트남이 가장 높은 교역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
 - Maersk는 지리적 기반으로 구성된 TPP가 환태평양 지역에서 베트남을 제조업 중심지역으로 변화시켜 경제 자유화를 위한 상위 단계로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환태평양 지역에서 베트남의 제조업 기능은 더욱 부각될 전망
 - 베트남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인건비와 제작비용으로 섬유 및 의류산업분야의 경쟁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 현재는 섬유 제조업체에 17~3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지만 TPP 이후에는 매우 낮거나 폐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다양한 국가의 투자가 진행 중인 상태
 - 하지만 아직까지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TPP 미가입 국가들을 포함하여 수출을 위한 원자재, 기계 등을 수입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등 지원 산업이 부족하고, 안 포워드 원산지 규정(Yan Forward rule of origin)³⁾과 같은 법적 이슈가 방해요인으로 작용
 - 베트남은 TPP로 인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자국 내 기반산업 구축이 필요
- 베트남 인프라의 한 축인 항만 또한 TPP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봉타우 지역과 호치민 지역 사이에 위치한 Mearsk그룹 APMT의 조인트벤처 항만인 Cai Mep 터미널은 현재 용량의 30% 수준인 약 2백만 TEU 수준의 물량만을 처리하는 등 공급과잉 상태
 - Mearsk는 장기적 관점에서 TPP로 인해 베트남의 수출입이 증가하면 항만 인프라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계속되는 대형 선박의 출시로 기존 선박이 재배치되는 캐스케이딩(Cascading)효과에 힘입어 Cai Mep 항만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 : www.vietnamnet.vn, 2013.12.21.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2)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며, 가입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인 지역경제통합체

3) 미국 원사규정으로 직물, 의류 등에서 원료인 실의 생산국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로 비관세 장벽의 일종

물류시장동향

□ 러시아, 무르만스크 항만 개발에 400억 달러 투입계획

- 러시아는 '러시아의 2010-2020 교통계획'에 포함된 무르만스크에 심수항만 건설을 계획
 - 특히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 블라디보스톡과 무르만스크 지역을 우선시하면서 무르만스크 항만 개발에도 박차
 - 무르만스크 항만은 컨테이너 터미널과 석탄 및 유류 처리를 하는 터미널로 구성될 계획이며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
- 무르만스크 항만은 2008년부터 개발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자들간 투자 방에 대한 합의점 도출 애로 및 본 개발관련 관리 정부인 Glavgosexpertiza of Russia의 무르만스크 허브 항만 계획 인가가 거부되면서 개발이 지연

자료 : www.hellenicshippingnews.com, 2013.12.25.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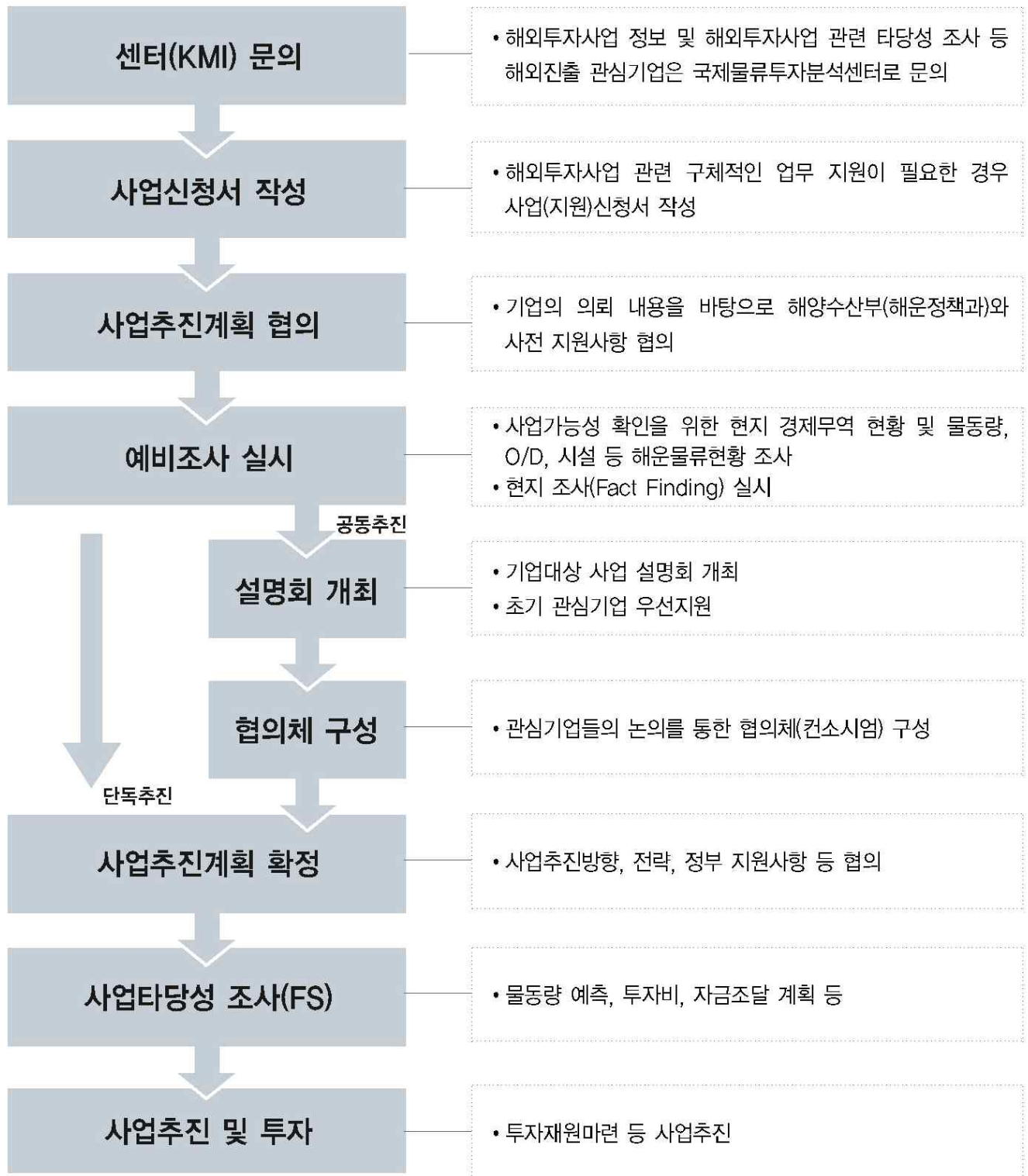
□ 러시아교통부, 서시베리아지역에 41억 달러 규모의 철도연장 사업 고려

- 러시아교통부는 서시베리아지역의 화물량 처리 및 광물 매장지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철도연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사업비는 총 1,340억 루블(약 41억 달러) 규모이며, 러시아국영 Gazprom사 및 러시아철도청이 참여할 예정
 - 이 사업을 통해 콘덴세이트 매장지가 산재해 있는 시베리아지역과 스베르들롭스크(Sverdlovsk) 철로를 연결하여 연간 2천만 톤의 화물처리 가능 예상
 - 2015년부터 옅스카야2(Obiskaya2)-나딤(Nadim) 구간 총 391km 길이를 연결하는 650억 루블(약 20억 달러) 규모의 공사 진행 계획
 - 또한 2017년부터 오비(Obi)강에 교량을 건설하는 690억 루블(약 22억 달러) 규모의 공사도 포함
 - 러시아교통부는 2014년 1월 20일에 이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며, 현재 중국 및 한국 등의 회사에서 관심을 표명

자료 : www.morvesti.ru, 2013.12.26.

박한나 연구원 (☎ 02-2105-2914, hnp@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